

10월 다섯째 주

결론

- 읽을 말씀 뉴 10:38-42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의 예언사역이 성경적이며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세 가지 인도!」 마지막 시간으로 들을 귀의 중요성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세 가지 인도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입니다. 이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분별력과 영의 증거를 캐치하는 민감성이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세 번째 인도를 정확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성령의 두 번째 인도를 잘 받아도 삼중사역이 불가능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성도님들은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보는 눈과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은 들을 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을 귀는 우리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히 사모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 신기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면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다수는,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거부감을 보이고, 안 들으려고 합니다. 반대로, 소수는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을 빛내며 달게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극히 소수를 일으키셔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진리가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아무리 연구해도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참 진리로 충만해질 수 있는 길은 겸손히 듣고 배우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들을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교만하여 겸손히 배우려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진리로 충만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고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최고의 사도와 선지자지만, 들을 귀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유익했습니다. 또한, 11사도와 바울이 받은 계시들, 그리고 오늘날의 사도와 선지자들이 깨닫고 선포하는 진리들도 오직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들을 귀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들을 귀와 관계가 있는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도록 “한 가지”를 강조해왔습니다(시 27:4). 여기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는 실제로는 두 가지이고 그 두 가지를 합해야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한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시 27:4)이고, 다른 한 가지는 말씀을 잘 듣는 것(눅 10:38-42)입니다. 우리에게는 둘 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지인 들을 귀의 중요성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들을 귀가 있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다(롬 10:17).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통해 참 신자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옥토만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목적이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옥토만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시작과 끝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4:3-9, 뉴 8:8)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마 13:43)고 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곳에서도 들을 귀가 있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자가 참 신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요 5:25, 10:27, 18:37). 그런데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에게 들을 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2) 들을 귀가 있어야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반드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비결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곱 통의 편지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먼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연이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궁극적인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모두 동일한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버림받지 않고 궁극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천국에 가려면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3) 들을 귀가 있어야 삼중사역이 가능케 된다.

삼중사역은 영혼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 나라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훌륭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받은 은혜와 성공적인 사역에 만족할 뿐 진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겸손과 들을 귀가 있는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삼중사역이 불가능합니다. 사역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한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뿐 아니라 진리를 사모하는 한 가지를 추구해야 합니다.

(4) 들을 귀가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와 성도가 된다.

누가 진짜 우리 교회의 성도, 일꾼, 믿을 수 있는 동역자일까요? 들을 귀가 있는 목회자와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를 평생 고수해야 하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한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계속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듯, 한 번 들을 귀도 영원한 들을 귀가 아닙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엄중한 경고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1)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요 6:68).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은 교회에 남고, 들을 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들을 귀를 고수하는 것이 자기 영혼을 보존하며,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쓰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닫고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2) 들을 귀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끝까지 우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교회를 떠나간 목회자들을 보면, 그전과 달리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뿐 아니라 목회자들도 진리를 사모하여 절대로 들을 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5) 들을 귀가 있어야 권위 아래 거하고 질서를 지킬 수 있다(마 11:25).

들을 귀를 잃어버리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들을 귀와 겸손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들을 귀를 잃었다는 것은 교만해졌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마귀가 된 것은 교만해져서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유 1:6). 그런데 교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분량과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를 위한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런데 들을 귀를 잃어버리면 교회 안에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뜻대로 은사와 분량을 나눠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만 강조하면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가지뿐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한 가지를 함께 충분히 강조하면, 성도들이 영적인 권위에 순복해 질서가 확립되고 강력한 군대가 되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만, 그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말씀을 잘 듣는 “한 가지”를 포함해서 두 종류의 “한 가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합해야 진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 가지를 추구해야 영혼들이 안전하고 삼중사역이 가능해져서 더 효과적인 목회와 선교는 물론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을 최대한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짜 한 가지를 끝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 나눔과 적용

들을 귀가 있어야 참 신자가 될 수 있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듣는 진짜 한 가지를 추구할 때 내 삶에 나타난 변화를 나누어 봅시다.